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대승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법공양 페이지

# 내게 자갈 물려서라도 안으로 굴러라

오늘 여러분들과 오래간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같이 있고 같이 안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등글게, 모가 나지 않게 사시라고, 참선은 좌선이나 행선이나 와선이나 입선이나 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살이하는 데 결림 없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사는 삶이 바로 부처님 법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흔히들 소나 코끼리를 비유해서 방편을 썼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한테 직접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자갈을 물려라 둘째, 많은 식량을 욕심내지 마라.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마라 셋째, 길을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해라 이런거죠. 왜냐? 예전의 방편도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니까 너무나 더디고 자꾸 말이 빗나가게 되기 때문에 나는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갈을 물려라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고 길들여 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안으로 모든 걸 굴러라', 이게 자갈입니다. 왜냐하면 바깥으로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저 버릴 말을 마구하고 이러한 것을 금지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으로 굴러놓지 않는다면 자갈을 맞출 수 없으니까요.

둘째는 모든 것에 밥을 주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공식을 구하라,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안으로 공식을 구하지 바깥으로 탐욕을 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 하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로 탐욕이나 취하는 욕망이나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그런 계생기면 나온 자리에 몰록 보라 그런 뜻입니다.

셋째, 예전엔 소로, 코끼리를 비유를 했지만 지금 현상세계에 가만히 보십시오. 길을 올바르게 들지 못해서 남의 밥에 놓사 지어놓은 것을 잊습니까? 그리고 자기 타인도 손해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손해가 나는 일이지요. 모두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방편을 쓰되 야만처럼, 야생 소처럼 그렇게 날뛰는 것을 두들겨 패야 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라 이런 뜻이요. 나는 채찍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길들이고 자신을 리드해나가고 자신을 이끌어 가는 데는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말합니다. 사람이 최고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본다면 날아다니는 거나 모든 짐승들 하다못해 기어다니는 개미든 초목이든...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인간은 앞을 내다보지도 못해요. 하루의 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까요?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역경을 거치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진화시켜서 이끌어 온 그걸로 인해 보배와 같이 된 자기가 있다.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을 믿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오시면 항상 자갈을 물려서 거기 불성 기둥에다가 묶어줬던 말입니다. 살아 나가다가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생각이 얼른 나게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지나거나 그것을 염려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기에서 알지 못한다면 감각적으로나 또 지각이나 시각 미각 촉각 이런 것이 발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일 일도 모르지마는 이따가 하루 몇 시간 후의 일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나 하다못해 개미들도 1년을 알고 있어요. 비바람이 불면 자기 집이 무너질까 봐 미리미리 대처해서 그 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거냐 하는 걸 알고 말입니다. 개미뿐만 아니죠. 하다못해 개구리도 자기 알을 낳아놓고 잠잠가 들면 알 때내려 갈까봐 높은 위태라가 뜰다 놓고 말이에요. 이런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항상 지켜왔습니다만 욕수수나 수수 나무나 이런 것이 '그거, 뭐를 알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올해는 비바람이 심할걸 알고 있어요. 비바람이 몹시 불던 해에 그 뿌리를 파보면 말입니다. 뿌리가 흔들려 크게 치고 있어요. 완고하게 차기 몸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뭘까.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내일 일을 생각지도 못하고 또는 이따가 일도 생각지도 못하고... 옛날엔 눈먼 거북이, 귀머지 거북이가 세상 구경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항상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데 거북이가 생각하기를 세상에 나와서 하늘 구경도 못하고 이거는 항상 쓴살같이 흐르는 물에 허우적거리며 산 데서야 이거 살았다고 할 수 있겠나 하고 한탄을 했더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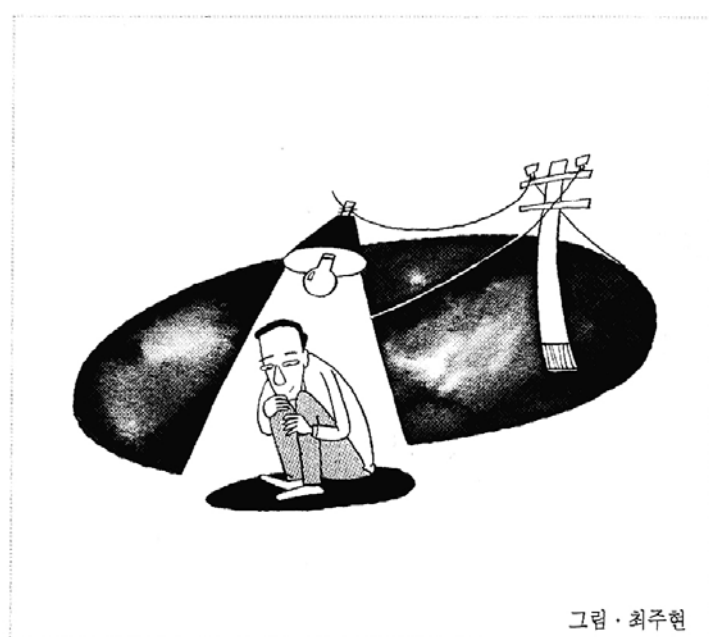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자기가 자기 길들여야지 누가 길들이나 보배같은 불성기둥에 나를 비껴어 매고

이도 몇 번을 진화돼서 거북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했죠. 그래서 고생 안 해본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이런 뜻도 돼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보니까,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죽어도 고만 살아도 고만, 이런 생생 살아 뭘 하나, 하늘도 구경 못하고 항상 이렇게 해매고, 그러다가 남한테 잡혀먹히거나 하는 생명이 살면 필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말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그냥 튀어올라왔는데 튀어올라오는 그 시각에 바로 뱀목이 때내려가다가 탁 마주쳤던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데도 그런 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허우적거리더라도 주인공 자리에서 물러놓고 그냥 또 거기다가 '너만이 할 수 있어' '감사해' 하고 두 가지로 항상 굴러다보면 어느 때에는 불현듯이 뱀목을 만난다' 그러니까 자기 그 불성 기둥이 불꽃 솟는다 이런 뜻과 같아요.

지금 쓴살같이 흐르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라고도 본다면 마음에 여유가 없이 하늘을 어떻게 구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고 필떡 튀어 나왔는데 그 순간 뱀목을 딱 만나서 자기 올라와서 여유있게 구경을 했더라입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에 눈 뜨고 귀 뜯는 사람은 살기가 좀 여유가 있겠지만은 눈 멀고 귀 먼 사람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눈 먼 거북이나 똑같은 허우적거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살 거를 생각하고 욕심을 내고, 건너지도 못할 걸 건져내고 애를 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소에 비유를 하면 소가 두 번째로는 먹이지마라, 굶겨라, 안으로

공식을 해서 자기 스스로 배가 부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이 한치 앞도 못 본다 하는 것은 우리 정신계의 자기를 자기가 발전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선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우리가 다른 걸 못 본다면은 전선이라도 좀 보세요. 곁에 감아놓은 끈질이 있고 그 안에 줄이 있는데 그 속의 줄에서 불이 들어오게 하지 곁에서 불 들어오게 하는 일은 없죠. 그런데 곁에 감아놓은 게 없어도 아니 되고 속 알맹이가 없어도 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이 풀이 아니죠. 이게 없어도 아니 되고 저게 없어도 아니 되고.

사람도 자기 주인공이 없어도 아니 되고 자기 욕심이 없어도 아니된다. 그래서 항상 그 욕심은 전선 줄의 곁데기와 같은 거니까 안에 보존하고 있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라. 그 보존하고 있는 전선 줄만이 불을 들어오게 할 수 있다. 불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모두 밝게 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영향력을 주고 모두, 일체 모든 것을 다 거머쥐어 나오게 하

각해요. 생각조차 안 날 때도 있고, 또 그래서 옛날에 코끼리를 길들이고 또 스리고 하는 데는 뭘 일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 세상에 들도 없는 대왕을 울바로 모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모든 중생들, 일체 만물에 다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들이던 이런 말을 했죠. 그런 거와 같이 자신이 자기를 길 안 들이면 누가 길을 들이며 자기 자신을 리드 안 하면 누가 리드하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익하게 하고 개발시키고 정신계의 후원이 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해주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길 했죠? 비가 안 온다 온다 이거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그거를 알게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거 사는 것을 떠나서 내가 자작으로, 자유스럽게, 자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죠. 병이 낫는다 말하고 안 낫는다 말하고를 떠나서, 병뿐이 아니라 일체 삶에 대한 요소들을 떠나서 내가 자유자재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목마르면 물 먹고 잠잠가 싶으면 잠 자고 배고르면 밥 먹고 이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그런데 날아가는 새들도 자기 동지가 떠날까봐 걱정을 하고서 미리 아주 철통같이 하는데 왜 사람은 자기가 떠날까봐 걸 모르고 사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요거는 요거다 저저는 저저다, 이것은 옹고 이것은 그르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끝내 여러분들의 그 불기둥의 위력을 모르실 겁니다. 아, 생명이 불이라고 그랬죠. 불로 인해서, 생명으로 인해서 신앙이 생긴 거라구요. 그래서 자기 자성을 완성하지 못하면 여유있게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뭔가 일부러 생각하는 게 아니라, 뚝뚝 생각이 나면, 그렇게 되게끔 돼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됐든 지각이 일어나고 지혜가 생기고, 또는 감각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보면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자작한 자갈을 물려라 이랬다 해서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갈을 물려놓았지만 자갈이 스스로 없어져도 그냥 자갈 낱 거와 같이 항상 하고있게 된다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스스로 그냥 바르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선의 알맹이를 믿지 못한다면 곁데기는 항상 바깥으로 험잡하고 불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안의 곁데기 모르니까, 믿지 못하니까 선뜻 넘어서지도 못하죠. 나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뭐 죽고 사는 걸 그렇게 겁내라.' 그리고 아무 데라도 뛰어들어왔던 거예요. 죽고 사는 걸 개의치 않고 말이예요. 그런 까닭에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물음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익인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항상 향을 피우고 항상 탑돌이 하는 삶.

마음이 주인공과 더불어 하나일 때는 부처님께 경배하는 것이 구도가 된다. 마음이 주인공을 떠나 있을 때는 부처님께 드리는 경배가 기복이 되어 참 공덕이 없다. 마음이 주인공과 더불어 하나일 때는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 된다. 마음이 주인공을 떠나 있을 때는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이 나를 멸시하는 게 된다.

부처님 마음과 주인공 마음이 하나가 되게 경배를 올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욕심, '나'라는 의식이 향복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배하는 마음은 항상 숙연하면서 겸손해야 하고 정성이 지극해야 한다. 또 일체에 감사하는 마음이야 한다.

둘 아닌 도리를 알고 내공의 이치를 안다면 경배는 경배대로 올리면서도 항상 향기와 빛으로 온 누리를 감쌀 수 있겠지만 그러하기 전에는 부처님 마음과 주인공 마음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지극한 마음으로 향복을 해야 한다.

삼배라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 스승의 마음, 자기의 마음이다 모든 것을 다 같이 놓고 풀려서 합성 경배하는 것이다. 일체의 마음과 풀이 아닌 데다가 일배를 올리고, 일체 만물이 돌아가는 데다 일배 올리고, 풀이 없게 행하며 돌아가는 데다 일배를 올리는 것이다.

참된 예경은 나를 낮추고 불보살과 선지식을 높이는 마음이지만, 동시에 일체 한 마음과 더불어 풀이 아닌 뜻과 함께 의연함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따라서 그것은 지극한 정성으로 불보살의 가피를 비는 중에도 그 중심을 깊이 내 안에 두는 것이다. 밖에 찾는 한은 정성이 제아무리 지극해도 그것이 부덕을 지을 수는 있었지만 무한하고 참된 공덕이 되지는 못한다.

무겁고 진실하게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한번! 절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가져 보라. 그렇지 않고서야 이 우주 법계 전체에 더 어떻게 일일이 절을 할 수 있겠는가. 절성각에 절하고 산신각에 절하고, 또 어디에 절하고 하는 마음이 애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무겁고 진실한 절이 진짜 절이다.

어디를 가나 부처님과 내가 풀이 하나가 주인공이 내고 들이고 하는 줄 안다면 항상 예를 올리고 항상 배를 하는 것이며, 항상 향을 피우고 항상 탑돌이를 하는 것이다.

부처님과 선지식께 드리는 경배는 바로 나 자신의 참 성품에 드리는 경배이며, 부처님과 선지식께 드리는 공양은 바로 나의 주인공에게 드리는 공양이다. 필경은 부처님 마음도, 보살 신중의 마음도, 역대 조사님네들과 선지식들의 마음도, 조상님들과 온갖 중생들의 마음도 다 나의 주인공 그

한마음 속에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마음과 함께하는 경배, 공양은 일체 제불 일체 중생과 더불어 올리는 경배요 공양인 것이니 언제나 나의 근본인 주인공 한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 앞에서 일체를 굴러 일배를 할 때 바로 현재심 과거심 미래심이 일심으로 돌아가기에 일배가 만배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 앞에서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할 때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부처님 형상과 내 형상이 풀이 아닌 것을 뜻합니니 바로 내 욕심 고깃덩어리가 내 주인공에 절을 한 것이다.

한 생각이면 삼천 번 절한 것이 되고, 한 번 절한 것이 삼만 번 절한 셈이 될 수도 있다. 시공의 제한을 받는 마음이라면 일배는 일배요, 삼천배는 삼천배이지만 전체의 근본자기가 인간 마음에 적절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일배든 삼천배든 다 한 생각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 한가운데 계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빌었다 하면 이미 멀어진 것이다. 여기에 빌어야 하고 저기에 빌어야 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부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 것이 된다.

백팔배를 하라, 삼천배를 하라 하고 절을 시키는 것은, 제 나무에서 실과가 무르익어 갖가지로 맛을 내고 그 씨를 되심어서 또 익어 영원한 제 맛을 보라고 시킨 것이다.

협찬: 한마음